

서울시 후기청소년의 삶의 가치관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삶의 자신감의 조절효과

김 태 균*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본 연구는 후기청소년의 삶의 가치관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자신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서울시의 '2019년 세대 균형 실태조사'의 19세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2,432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삶의 가치관이 사회참여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치관이 사회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데 삶의 자신감이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후기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 삶의 가치관과 삶의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후기청소년, 삶의 가치관, 삶의 자신감, 사회참여

* 주저자: 김태균/성산효대학원대학교 HYO아동 청소년교육학과 부교수/인천시 남동구 석정로 543
Tel: 070-4361-7725/E-mail: youth1@paran.co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의 책임과 의무, 스스로의 사결정을 하도록 허용하고, 조장되어야 할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5). Winter(1997)는 자신의 생활환경에 참여하는 기회 보장을 하는 것이 청소년 참여로 정의하고 있다(Winter, M, 1997). 청소년 참여는 국내외적으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CRC)에 의하면 사회참여는 모든 청소년의 기본권리로 규정하고 있고(Jeniffer, 2002), 1998년 세계 청소년 장관회의에서 청소년 참여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김영지·김세진, 2004; 여성가족부, 2012). 이뿐 아니라 ‘청소년 2030:UN 청소년전략’에 청소년개발과 청소년 참여를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분야로 청소년 참여를 선정하고 있고, UN 청소년전략의 1대 우선순위로 사회참여를 선정하고 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사회참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면서 다양한 참여 정책들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참여 정책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정치참여에서도 청소년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청소년의회 운영 등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최창욱·전명기, 2013). 선거연령도 2020년 만 19세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청소년의 선거권 범위를 늘리기도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의 사회참여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다양한 연령 범주가 존재하는 청소년을 어느 연령대까지 사회참여를 보장해야

하는가에 관한 합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의 한국 사회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경향 때문에 성인 세대의 규율에 순응해야 한다는 태도가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천지은·김민곤·박정민, 2018).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을 9세 이상~24세 이하의 연령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청소년 참여에 관해서는 19세 미만의 참여와 19세 이상의 참여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19세 이상의 후기청소년의 경우 선거권이 보장되어 있어 사회참여에 관한 권리가 보장된 반면,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의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구가 있지만, 극소수의 청소년들만 참여하고 있어 모든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참여 권리가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 참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아도 대부분의 청소년 참여에 관한 연구들은 19세 이상(한숙희·조아미, 2021)보다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박명윤, 1992; 천지은·김민곤·박정민, 2018; 허인숙·이정현, 2004; 황영정, 2021)으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중요성보다 상대적으로 19세 이상의 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의 사회참여가 국내외적으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개인 요인, 가정요인, 학교 요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개인 요인으로는 가치관(김영재, 2019; 변길섭, 2014; 서승호, 2017), 효능감(김동진·김재우, 2021; 박성준·김주일, 2015; 전소연·고일선·배가령, 2014), 대인관계(하승태·이정교, 2012), 관심도(전소연·고일선·배가령, 2014), 사회참여 경험(전지원, 2018) 등이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고, 가정요인으로는 가정환경(김위정, 2012)이 학교 요인은 학교 경험(김위정, 2012; 박정서, 2012)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미디어(이윤주·유혜영, 2016), 문화예술 활동(조미카·구승희, 2020) 등 사회참여에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걸음마 단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보완되어야 함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UN의 청소년 참여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사회참여에 대한 청소년 개인의 가치관이 중요하지만, 청소년 개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가치관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Jeniffer(2002)는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면 된다는 인식이나 성인의 역할을 이양한다는 인식, 성인들은 청소년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인식, 청소년들은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기회만 필요하다는 생각 등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대한 오해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즉 청소년 개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삶의 가치관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가치관과 사회참여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가치관에 관한 연구는 부모의 가치관(서승호, 2017),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김영재, 2019) 등이다. 이들 연구는 청소년 가치관과 사회참여를 직접적인 관계를 밝히거나 사회참여에 관한 인식 수준 정도를 밝히고 있어 가치관과 사회참여 간의 인과적 관계를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후기 청소년의 경우 19세에서 24세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연령대로 대학생 시기에 해당하는 연령들이다. 이들은 선거권 등 성인으로서의 사회참여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 사회참여의 권리가 보장된 후기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개인의 가치관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는 사회참여와 능력개발의 순환적 성장 관계

를 고려하여야 한다(김갑철, 2016; 이현주, 2015). 이현주(2015)는 사회적 활동과 인지기능 간에는 단순한 원인과 결과의 인과 관계적 해석보다 순환적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즉, 사회참여가 청소년의 능력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험이 필요하고, 이러한 경험은 청소년의 능력과 자신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사회참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전기 청소년 시기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험이 있는 경우 후기 청소년이 되었을 때 사회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순환적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김갑철, 2016; 이현주, 2015). 따라서 후기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삶의 자신감 요인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삶의 자신감은 가치관과 사회참여간에 조절변인으로 작동 가능성이 높다.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도 스스로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높아지게 되고, 삶의 자신감이 높아지면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게 된다(박은아·김현정·서현숙, 2009). 삶의 가치관이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데 삶의 자신감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조절효과도 보일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19세~24세의 후기청소년의 사회참여에 삶의 가치관과 삶의 자신감이 영향을 미쳐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삶의 자신감은 삶의 가치관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변수로 작동할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그동안 후기청소년의 사회참여를 다룬 연구들은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 그 영향력을 분석하는 탐색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각 변인이 서로 어떤 연관성을 이루면서 후기청소년의 사회참여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후기청소년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에 조절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후기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삶의 가치관과 삶의 자신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삶의 가치관과 삶의 자신감이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삶의 가치관이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데 삶의 자신감이 조절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의 삶의 가치관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자신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데 있다.

2. 이론적 배경

1) 후기 청소년의 사회참여

청소년 시기는 애착에서 독립의 과정으로 성장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발달 특성 때문에 사회참여는 청소년기에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손진희·이해경, 2019). 즉, 청소년기의 다양한 사회참여는 자연스럽게 사회화로 나아가게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이다(Youniss et al., 1997).

사회참여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의 사회적 활동의 하나로서 어떤 단체나 조직체에 단순한 가입이나 참석보다도 더욱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을 선거에 참여하거나, 신문 등 언론에 참여하거나, 민원서 제출, 집단행동에 참여, 시민단체 가입 등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교육부, 1996, 허인숙·이정현, 2004).

사회참여에 관한 개념을 박가나(2009)는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고, 김영인(2017)은 집회 및 시위 참여, 봉사활동 등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활동까지의 다양한 참여로 정의하고 있다. 허인숙과 이정현(2004)은 사회참여를 사

회구성원이 개인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에 관련되는 의사결정과정을 비롯한 모든 사회 과정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청소년의 사회적 활동의 하나로서 어떤 단체나 조직체에 가입, 참석, 집회 참여, 봉사활동 등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후기 청소년기의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화로 나아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후기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후기 청소년들이 심리 정서적 어려움 때문에 사회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김지경과 이윤주(2018)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위원회 의료통계를 분석한 결과 20대 청년이 세대 간 격차, 세대 내 격차, 취업, 불투명한 사회 등으로 인해 심리 정서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 때문에 우울, 불안, 자살 등의 후기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참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개인의 능력보다 가정 배경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경험을 하면서이다. ‘개천에서 용 안 난다.’, ‘3포세대’, ‘7포 세대’ 등과 같이 후기 청소년들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능력으로 성공 여부가 판단되기보다는 부모의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사회참여를 더 소극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후기 청소년은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등으로 사회참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삶의 가치관과 사회참여

가치관은 개인이 신념을 가지고 선택하며 평가하는 바람직한 최종상태로 사회활동, 문화, 진로(직업), 일상생활, 대인관계 등의 각 영역에 대한 개인의 신념, 태도, 판단의 영향으로 정의될 수 있다(Newcomb et al. 1970).

가치관은 사회사상과 일상생활의 의식이 결합하면서 형성된다. 가치관은 도덕적 판단 기준과 어떤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을 내포하고 있어서 어떠한 행위가 옳고 그릇된 행동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가치관에 따라 삶의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관과 참여에 관한 인과관계를 밝히고 있다. 먼저 미국 나노과학자를 대상으로 과학 기술인력의 사회참여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힌 김영재(2019)는 미국 나노과학자들은 대중을 보는 관점이나 정치, 종교관 등 다양한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 사회참여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스포츠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참여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황철상(2010)은 스포츠를 신체적, 품성적, 사교적, 심리적, 경제적 등의 관점에 따라 가정지향, 취미 오락, 스트레스 해소, 건강지향, 자기 계발 등의 참여 형태로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가치관과 운동지속 행동을 연구한 노수연(2018)의 연구에서도 신체 가치관은 운동지속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운동지속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신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신념을 주고 이는 사회적 관계를 갖는데 외모가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신념을 매개로 운동지속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후기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사회참여의 선행연구들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김갑철(2016)은 청년 유권자의 탈 정당화와 가치관과 이념에서 가치관과 이념의 영향력이 강하게 존재한다는 연구와 가치관은 결혼,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남정

은, 2013; 이삼식, 2006; 최효미, 2017)는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사회참여를 위축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후기 청소년의 가치관과 사회참여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처럼 가치관은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의 삶의 가치관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3) 삶의 자신감과 사회참여

자신감은 자신을 믿는 감정이다. 일반적으로 자신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든 대범하게 행동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빠르게 적응한다. 반면에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은 소심하게 행동으로 고백, 발표, 시험 등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자신감은 자아존중감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가치 있게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은숙·이경순, 2018).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이 있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적응력이 높고, 대인관계에서도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현주 외, 2014).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주변 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감이 낮고,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Campbell et al., 1996).

자신감은 신체활동과 깊은 관련성도 있다(Sallis et al., 1992). 정기적으로 걷기를 하는 경우 가끔 걷지 않는 사람에 비해 높은 자신감을 보이고(Eyler, Brownson, Bacak, & Housemann, 2003), 심리·신체적 자신감은 자기 삶의 목표 수행에 도움이 된다(권수정, 2005), 청소년들의 높은 스포츠자신감은 학교생활 적응과 신체 자기개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허정훈 외, 2015).

하지만 후기청소년들은 취업, 결혼, 주거 등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이라는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서 사회참여에 소극적인 수밖에 없다(곽윤경, 2021). 이처럼 자신감은 참여를 활성화 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는 중요한 조절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치관이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신감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나의 노후는 안정적인 것이다’, ‘나의 삶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다.’, ‘나는 창업 등 새로운 도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용의가 있다.’,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로 구성되어 있고, 1점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가치관이 건강한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764로 나타났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2019년 서울특별시에서 청년세대들의 사회·경제적 실태의 변화를 안정적으로 추적 관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대균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세대균형 실태조사는 2019년에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세대 10,000명을 표본으로 95% ±0.98%p 신뢰수준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세대균형 실태조사’ 자료 중 19세에서 24세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후기청소년 2,4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서울시, 2019).

2. 측정도구

1) 독립변인 - 삶의 가치관

삶의 가치관 변수는 2019년 서울시 세대균형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가치관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KMO와 Bartlett의 검정을 시행한 결과 KMO 값이 0.761로 변수들의 선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Bartlett 검정을 통해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요인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관 문항은 5개 문항으로 ‘나는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살고 있

2) 조절변인 - 삶의 자신감

삶의 자신감 변수는 2019년 서울시 세대균형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자신감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KMO와 Bartlett의 검정을 시행한 결과 KMO 값이 0.799로 변수들의 선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Bartlett 검정을 통해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요인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감 문항은 5개 문항으로 ‘원하는 일자리를 갖는 것에 자신감 있다’, ‘내 집 마련에 자신감 있다’, ‘연애 및 결혼에 자신감 있다’, ‘아이 양육’,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자신감 있다’로 구성되어 있고, 1점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자신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823로 나타났다.

3) 종속변인 - 사회참여

사회참여 변수는 2019년 서울시 세대균형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참여성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KMO와 Bartlett의 검정을 시행한 결과 KMO 값이 0.691로 변수들의 선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Bartlett 검정을 통해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요인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 문항은 3개 문항으로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의 노력은 지역공동체나 사회문제 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로 구성되어 있고, 1점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참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815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3.0, Amo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은 각각 $p < .05$, $p < .01$, $p < .001$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으로는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을 적용한 효과성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조절 효과 분석에는 각 변수의 평균 중심화(mean-centering)를 실시하여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Baron과 Kenny(1986)의 인과관계 전략을 활용한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1단계는 평균 중심화(mean-centering)한 가치관을 독립변수에 투입하고 사회참여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조절변수인 자신감을 독립변수로 추가로 투입하였고, 3단계에서는 가치관과 자신감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단순회귀 선의 기울기와 조절 효과의 유의성은 Hayes(2013)의 SPSS Macro 프로그램인 PROCESS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III. 결과

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표

III-1>과 같다. 남자가 1,154명, 여자가 1,278명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4세가 25.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23세(18.7%), 19세(16.4%), 22세(1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거주지역으로는 노원구가 5.8%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는 2.1~4.9%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432)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1154	47.5
	여성	1278	52.5
연령	19	400	16.4
	20	220	9.0
	21	355	14.6
	22	388	16.0
	23	455	18.7
	24	614	25.2
거주 지역	종로구	63	2.6
	중구	52	2.1
	용산구	62	2.5
	성동구	83	3.4
	광진구	101	4.2
	동대문구	104	4.3
	중랑구	97	4.0
	성북구	119	4.9
	강북구	83	3.4
	도봉구	99	4.1
거주 지역	노원구	141	5.8
	은평구	102	4.2
	서대문구	100	4.1
	마포구	96	3.9
	양천구	119	4.9
	강서구	110	4.5
	구로구	93	3.8
	금천구	70	2.9

구분	빈도	퍼센트	
거주 지역	영등포구	84	3.5
	동작구	105	4.3
	관악구	118	4.9
	서초구	100	4.1
	강남구	112	4.6
	송파구	123	5.1
	강동구	96	3.9

2. 주요 변수의 양호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19년 서울시 세대균형 실태조사의 양호도 분석을 우선하여 실시하였다. 다변량 통계분석은 정규분포(normality), 등분산성(homoscedasticity), 선형성(Linearity) 등을 만족해야 한다. 이러한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분석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성태제, 2008).

1) 정규성 검증

측정 도구의 양호도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 및 정규성 검증을 위해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표 III-2>와 같이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는 각각 절대값 2 미만, 5 미만으로 정규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왜도가 2보다 작거나 첨도가 7보다 작은 경우 추정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West et, al., 1995).

또한, 주요 변수를 살펴본 결과 자신감의 경우 5점 만점에 2.858점으로 보통(3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치관(M=3.170점)과 참여(M=3.028점)는 보통(3점)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통계량	표준 오차	통계량	표준 오차
삶의 자신감	2432	2.848	.753	-.057	.050	-.012	.099
삶의 가치관	2432	3.170	.671	-.286	.050	.608	.099
사회 참여	2432	3.028	.803	-.372	.050	.045	.099

2) 상관분석

자신감, 가치관, 사회참여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II-3>과 같다. 자신감과 가치관, 자신감과 참여, 가치관과 참여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감과 가치관의 상관은 .671로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감과 참여(r=.416), 가치관과 참여(r=.515)는 보통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 상관분석

	삶의 자신감	삶의 가치관	사회참여
삶의 자신감	1		
삶의 가치관	.671**	1	
사회참여	.416**	.515**	1

**p<.01

3) 확인적 요인분석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은 추상적인 구성개념인 구성개념 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검증에 주로 사용된다. 구성개념 타당성은 측정 도구가 연구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구성개념 타당성은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 검증을 위해서 개별 측정변수들의 부하량을 통해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를 검증하는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도출하여 확인하였다.

(1) 집중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 경로에서 첫 변수를 1로 고정하였고, AVE(평균분산 추출)와 C.R.(개념신뢰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표 III-4>와 같다.

요인의 개념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AVE)가 .9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Bollen, 1989; Hair et al, 1998).

<표 III-4>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

경로			비표준화			표준화 계수	평균분산 추출 (AVE)	개념 신뢰도 (C.R.)
			Estimate	S.E.	C.R.			
E031	←	가치관	1.000			.746	.943	.988
E032	←	가치관	1.186	.032	37.251***	.802		
E033	←	가치관	.802	.035	23.185***	.500		
E034	←	가치관	.852	.029	29.277***	.628		
E035	←	가치관	.542	.027	20.421***	.442		
E011	←	자신감	1.000			.560	.913	.981
E012	←	자신감	1.352	.056	23.961***	.638		
E013	←	자신감	1.619	.058	27.776***	.823		
E014	←	자신감	1.655	.060	27.433***	.802		
E015	←	자신감	1.453	.060	24.210***	.648		
E041	←	참여	1.000			.686	.960	.986
E042	←	참여	1.214	.037	32.798***	.809		
E043	←	참여	1.302	.039	33.063***	.834		

*p<.05, **p<.01, ***p<.001

(2) 판별타당성

본 연구에서 판별타당성을 분석을 위해 상관계수의 제곱값과 AVE값을 비교한 결과 <표 III-5>와 같다. 모든 변수에서 AVE값이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삶의 자신감	삶의 가치관	사회 참여	AVE
삶의 자신감	1			.913
삶의 가치관	.450	1		.943
사회 참여	.173	.265	1	.960

3. 분석결과

자신감의 조절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III-6>와 같다.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총 3단계의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가치관이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가치관과 자신감이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 가치관과 자신감의 변수를 각각 평균 중심화를 실시한 후 가치관과 자신감 변수의 값을 곱한 점수를 투입하여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각각의 단계에서 설명력의 변화 정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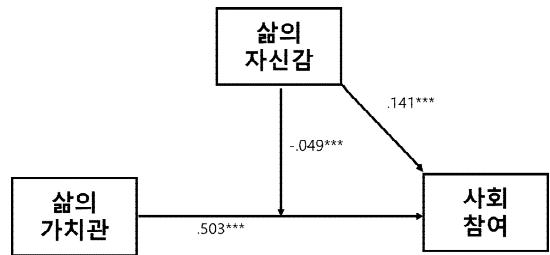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삶의 가치관이 사회참여(B=.616^{***})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조절변수인 삶의 자신감을 투입한 결과 가치관(B=.513^{***})과 삶의 자신감(B=.137^{***})이 사회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의 변화는 9% 증가하였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삶의 가치관(B=.503^{***}), 삶의 자신감(B=.141^{***}), 가치관×자신감(B=-.049^{***})이 사회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의 변화도 0.2% 증가하였다. 증가한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 삶의 자신감 조절 효과 분석

구분	Step1		Step2		Step3	
	B	β	B	β	B	β
상수	.000		.000		.017	
삶의 가치관	.616	.515 ^{***}	.513	.428 ^{***}	.503	.421 ^{***}
삶의 자신감			.137	.129 ^{***}	.141	.132 ^{***}
가치관× 자신감					-.049	-.042 [*]
R ² (ΔR ²)	.265		.274(.009 ^{***})		.276(.002 [*])	
F	873.522 ^{***}		458.846 ^{***}		308.4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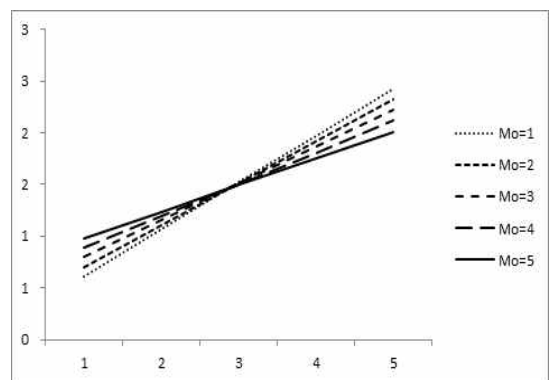
*p<.05, **p<.01, ***p<.001

이는 후기청소년의 삶의 가치관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자신감은 순수 조절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삶의 가치관과 삶의 자신감이 높을수록 사회참여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긍정적 삶의 가치관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변수가 음(-)으로 나타나 삶의 자신감이 커질수록 삶의 가치관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양(+)의 영향을 약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삶의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 삶의 가치관이 사회참여에 영향일 미치지만, 삶의 자신감이 높을수록 삶의 자신감이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II-1]과 같다.



*p<.05, **p<.01, ***p<.001

[그림 III-1] 삶의 자신감 조절효과



Mo = 삶의 자신감

[그림 III-2] 삶의 자신감 조절효과

조절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한 결과 <표 III-7>와 같다. 조절변수인 삶의 자신감은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LLCI) -.09와 상한값(ULCI) -.01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삶의 자신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 삶의 자신감 조절효과 분석

구분	B	S.E.	t	LLCI	ULCI
constant	3.04	.02	196.39***	3.01	3.07
삶의 가치관	.50	.03	17.89***	.45	.56
삶의 자신감	.14	.02	5.67***	.09	.19
가치관×자신감	-.05	.02	-2.40*	-.09	-.01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의 삶의 가치관이 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자신감의 조절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후기청소년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밝히기 위해 2019년 서울시에서 청년세대들의 사회·경제적 실태의 변화를 안정적으로 추적 관찰하기 위한 (가칭) 서울청년패널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을 목적으로 시행한 ‘2019년 세대 균형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2019년에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세대 10,000명을 표본으로 95% ±0.98%p 신뢰수준을 갖는다. 이 중에서 후기청소년에 해당되는 19세에서 24세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2,4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삶의 가치관이 사회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 삶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사회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김갑철(2016)과 이현주(2015)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삶의 가치관은 사회사상과 일상생활의 의식이 결합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사회참여와 삶의 가치관은 순환적 관계로 볼 수 있다. 삶의 가치관이 긍정적일수록 사회참여의 비율이 높아지고, 사회참여가 높으면 사회사상과 일상생활의 의식이 결합되어 삶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의미이다. 즉 후기청소년의 삶의 가치관을 높이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전기 청소년기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의미 있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방황하는 시기이다. 한마디로 전기 청소년 시기는 자아정체성 확립이라는 과제를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가치관, 정체성, 도덕성 등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강한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전기 청소년 시기부터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는 삶의 가치관이 사회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데 삶의 자신감이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가치관 긍정적으로 높아질수록 사회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하지만 삶의 자신감이 낮은 경우는 삶의 가치관이 사회참여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삶의 자신감이 평균 이상으로 높은 경우 삶의 가치관은 오히려 사회참여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후기청소년의 삶의 가치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또 하나는 삶의 자신감이 환경적 배경에서의 자신감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기청소년의 사회참여를 높이려는 방안으로 교육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 사회적 측면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교육적 측면이다. 후기청소년의 사회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삶의 자신감과 삶의 가치관을 밝혀짐에 따라 후기 청소년의 삶의 자신감과 삶의 가치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 마련

이 필요하다. 후기청소년의 교육기관으로 전문대학,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의 교육기관을 통해 삶의 자신감과 삶의 가치관을 높일 수 있는 교육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정책적 측면이다. 후기청소년의 삶의 자신감을 낮게 하는 요인으로 취업, 주거, 결혼 등의 불투명한 미래 사회의 불안감을 들 수 있다. 즉, 후기청소년의 삶의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주거, 취업, 결혼 등의 불투명한 미래 사회로부터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후기청소년의 주거 정책, 취업 정책, 결혼정책 등의 안정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책은 너무 높은 지원이나 낮은 지원의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삶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개인의 역량이나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정책적 발판을 마련되어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사회적 측면으로 부모의 배경이 아닌 개인의 능력 중심의 사회참여문화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후기청소년의 삶의 가치관이 조절 효과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한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사회참여를 높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즉, 개인의 능력중심의 사회참여문화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러한 사회참여 문화는 성인 세대가 이러한 문화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후기청소년이 건강한 삶의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후기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삶의 가치관, 삶의 자신감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는 종단적 연구가 아닌 횡단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두 번째로는 후기청소년을 서울시에 거주하는 후기청소년을 표본으로 추출하였기 때문에 전국적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로는 후기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 특성, 직업 유무, 직업 유형 등 환경적 요소 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 곽윤경 (2021). 청년의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9(1), 60-89.
- 교육부 (1996). 고등학교 공통사회(상). 한국교육개발원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권수정 (2005). 중, 고등학교 탁구선수의 자기관리 행동과 특성 스포츠 자신감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갑철 (2016). 청년 유권자의 탈정당화: 가치관과 이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진·김재우 (2021). 민주적 학급풍토가 청소년의 정치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치효능감의 매개효과. 시민교육연구, 53(2), 1-25.
- 김영인 (2017). 청소년 참여의 영향요인 탐색: 통상적·비통상적 참여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52, 37-71.
- 김영재 (2019). 과학기술인력의 사회참여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국 나노과학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8(4), 33-52.
- 김영지·김세진 (2004). 외국의 청소년 인권정책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위정 (2012). 가정환경과 학교경험이 청소년의 시민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3(1), 201-222.
- 김지경·이윤주 (2018).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남정은 (2013). 젊은 세대의 양육과 관련된 가치관에 관한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2), 441-460.
- 노수연 (2018). 필라테스 참가자의 신체가치관이 외모 도구성 및 운동지속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지털정책학회논문지*, 16(1), 381-387.
<https://doi.org/10.14400/JDC.2018.16.1.381>.
- 박가나 (2009).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6(10), 273-306.
- 박명윤 (1992). 청소년의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 *한국청소년연구*, 154-163.
- 박성준·김주일 (2015). 교사의 수용적 태도가 청소년의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학생참여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및 학교급에 따른 차이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7(2), 185-213.
- 박정서 (2012). 청소년의 정치적 태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5), 189-216.
- 박은아·김현정·서현숙 (2009). 문화적 자기개념 (self-construals)에 따른 외모중시 가치관과 외모관리행동. *소비자광고*, 10(2), 251-274.
- 변길섭 (2014). 청소년 시민참여활동과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부산시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시민청소년학연구*, 5(2), 1-46.
- 서승호 (2017). 부모의 가치관과 초등학생 자녀의 역사체험교육 참여 여부 간의 상관관계 분석. *인문사회*21, 8(6), 451-467.
- 서울특별시 (2019). 2019년 세대균형 실태조사 및 지표 개발 용역 보고서II.
- 성태제 (2008). 알기쉬운 통계분석. 학지사.
- 손진희·이해경 (2019).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활동연구*, 5(4), 51-69.
- 여성가족부 (2012). 2012년 청소년백서.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UN 세계청소년보고서 한국어판.
- 이삼식 (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95-140.
- 이윤주·유혜영 (2016).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사회연결망이 청소년 정치사회 참여에 미치는 구조 분석: 정치사회 관심과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8(1), 139-166.
- 이은숙·이경순 (2018). 소셜미디어 중독경향성과 자아존중감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교육공학연구*, 34(3), 495-523.
- 이현주 (2015). 중·고령자의 사회활동참여와 인지 기능.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3(1), 138-167.
- 전소연·고일선·배가령 (2014). 병원간호사의 정치 관심도, 정치 효능감 및 매체 이용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20(3), 342-352.
- 전지원 (2018). 청소년 참여활동 경험이 초기 성인기 시민의식과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 45(2), 5-30.
- 조미카·구승희 (2020). 문화예술 화동이 청소년의 사회성 확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부산진구 청소년예술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27), 311-342.
- 조현주·노지애·이현애·정성진·현명호 (2014). 초보 상담자들의 자기 성장을 위한 마음 챙김 자비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청소년학연구*, 21(12), 25-47.
- 천지은·김민곤·박정민 (2018). 청소년의 정치인식과 사회자본 수준에 대한 연구: 청소년 참여, 운영위원회 활동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2(3), 101-127.
- 최창욱·전명기 (2013).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효미 (2017). 청년 미혼층의 결혼 및 출산 의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49-55.
- 하승태·이정교 (2012). 청소년의 커뮤니케이션 이용 유형이 이들의 정치사회적 의식과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3(2), 101-129.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5). 제11회 청소년특별

- 회의 운영매뉴얼.
- 한숙희·조아미 (2021). 청소년의 첫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학연구*, 28(4), 63-87.
- 허인숙·이정현 (2004).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과 시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443-472.
- 허정훈·박용범·설정덕 (2015). 청소년의 학생건강체력(PAPS)과 스포츠자신감이 신체적 자기개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2), 555-572.
- 황여정 (2021). 청소년참여 경험이 자기표현능력 함양에 미치는 영향: 자치활동 및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4), 719-748.
- 황철상 (2010). 대학생의 스포츠가치관과 참여 동기가 스포츠 상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19(2), 741-750.
- Baron, R. M., & Kenny, D.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Bollen, K. A.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ew York: John Wiley & Sons
-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tz, I. M., Lavallee, L. F., and Lehman, D. R., (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 141-156.
- Eyler, A. A., Brownson, R. C., Bacak, S. J., & Housemann, R. A. (2003). The epidemiology of walking for physical activity in the United States. *Medicine and science in sports and exercise*, 35(9), 1529-1536.
- Hair, J. F., R. E. Anderson, R. L. Tatham and W. C. Black.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New Jersey: Prentice-Hall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
- Jeniffer, L. O. et al.(eds.). (2002). *Youth Participation (improving institutions and communities)*. MA: A Wiley Company.
- Newcomb, T. M., Turner. R. H. & Converse. P. E. (1970). *Social Psychology*,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 Sallis, J. F., Simons-Morton, B. G., Stone, E. J., Corbin, C. B., Epstein, L. H., Faucette, N., ... & Rowland, T. W. (1992). Determinants of physical activity and interventions in youth. *Medicine and science in sports and exercise*, 24(6), 248-257.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plications*, 56-75. Newbury Park, CA: Sage.
- Winter, M. (1997). *Children as Fellow Citizens: participation and commitment*. Oxford: Radcliffe Medical P
- Youniss, J, Mcllellan, J. A., & Yates, M. (1997). What we know about engendering civic identity.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0(6), 620-631.

투고일자 : 2021. 11. 12.

심사일자(1차) : 2021. 12. 15.

심사수정일자 : 2021. 12. 19.

게재확정일자 : 2021. 12. 31.

Impact of the Life Values of Late Adolescents in Seoul on Social Participation :Moderating Effect of Confidence in Life

TaeKeun Kim

SUNGSAN HYO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moderating effect of confidence in life in the impact of the life values of late adolescents on social participation. This study analyzed 2,432 adolescents aged between 19 and 24 in the “2019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Generation Balance” by the City of Seou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life values had a significant positive (+) impact on social participation. Second, confidence in life moderated the significant impact of values on social participation.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for enhancing life values and confidence in life to promote late adolescents' social participation.

Keywords: Late Adolescents, Youth, Life Values, Life Confidence, Social Participation